

한국디카시연구소 입장문 4

— 디카시의 정체성은 재정립이나 확장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장르의 본질입니다

최근 한국디카시인협회장이 발표한 「창작지도사 과정 3기 여러분께」라는 글에 대하여 한국디카시연구소는 이미 입장문 3을 통해 상당 부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글에는 **디카시의 장르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에, 한국디카시연구소는 다시 한번 우리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협회장은 자신의 글에서 "연구소장도 이러한 내용의 강연을 현장에서 이의 없이 여러 번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와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표현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협회장의 강연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사장에서 디카시의 개념을 바르게 다시 설명하거나 저의 강연 차례에 예뉘러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돼서 결국 저는 협회임원들이 있는 공간에서 협회장에게 직접 디카시의 정체성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했습니다.

바로 이 디카시 정체성에 대한 철학적 견해의 차이가 오늘의 조직 분리로 이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협회장은 이번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학술심포지엄이나 세미나를 통해 **디카시 개념의 재정립과 확장**, 시대적 변수와의 관계를 연구해 나갈 것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연구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22년 동안 창작과 연구, 교육과 학술을 통해 정립되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디카시의 기존 장르 개념을 다시 **"재정립"**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미 하나의 장르가 성립한 이후에는 그 장르를 설명하고 연구할 수는 있으나, 장르를 성립시키는 최소한의 본질을 다시 설정하는 것은 기존 장르를 다른 장르로 변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장르의 개념은 연구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임의로 재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예술을 만들고 싶다면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장르를 창안하면 됩니다. 기존 장르의 본질을 바꾸면서도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문학사적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디카시의 본질을 바꾸면서도 계속 디카시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개념의 확장이 아니라 장르의 혼란이자 파괴입니다.

디카시는 이미 장르적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문학 장르는 최소한의 형식적·미학적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하이쿠가 하이쿠인 이유가 있으며, 소네트가 소네트인 이유가 있듯, 디카시 역시 디카시를 디카시답게 만드는 최소한의 장르적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 핵심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알기 쉽게 복잡한 이론은 생략하고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함)

니다)

첫째, 자연이나 사물에서 순간적으로 현현한 시적 형상을 포착하고 디지털카메라(스마트폰 내장 디카 포함)로 촬영한다.

둘째, 시적 형상이 일으키는 시적 충동(감흥)을 문자기호로도 표현하여 사진기호와 하나의 통합 텍스트를 이루며 SNS 등 디지털 환경을 통해 즉시 소통한다. (물론 종이매체를 통한 발표도 가능하다.)

셋째, 문자기호는 독립된 시가 아니라 사진기호와 결합하여 의미를 생성하는 시적 언술이며, 극순간 예술의 특성상 5행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사진기호 그 자체로 역시 사진예술은 아니다.

넷째, 디카시는 순간 포착, 순간 언술, 순간 소통이라는 디지털 시대의 환경 속에서 창작되고 향유되는 새로운 서정양식이다.

이 네 가지는 지난 22년 동안 디카시가 하나의 문학 장르로 성립하고 발전해 온 최소한의 본질입니다.

문학은 시대의 변화에 반응합니다. 장르는 시대에 따라 작품 세계와 표현 양식은 변화할 수 있지만, **장르를 성립시키는 최소한의 형식 원리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디카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환경을 제거하거나, 사진기호와 문자기호의 통합성을 해체하거나, 사진 대신 동영상을 포함한 모호한 영상의 개념을 도입하거나, 문자기호를 독립된 시로 바꾸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디카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상시일 수도 있고, 사진시일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새로운 장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디카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협회와 연구소의 차이입니다.

한국디카시연구소는 새로운 표현 방식과 새로운 예술의 탄생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장르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이론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성립된 장르의 정체성을 변경하면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문학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국디카시연구소는 지난 22년 동안 디카시의 창작 이론과 교육 체계, 학술 연구를 축적하며 디카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지켜 왔습니다.

그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특정 개인의 견해를 고집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학 장르가 성립해 온 디카시의 정체성을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22년 동안 창작과 연구, 교육과 학술을 통해 형성된 문학사적 성과이며 앞으로도 지켜야 할 공공의 자산입니다.

한국디카시연구소는 앞으로도 디카시의 창립정신과 장르적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며,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 서정양식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후로도 디카시 정체성이나 디카시문예운동을 잘못 기술하면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이 일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한국디카시연구소 홈페이지나 한국디카시연구소 부설 디카시마니아에 디카시 정체성을 훼손하는 외부 세력의 공격에 대해 디카시 창시자인 제가 직접 대응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은 한국디카시연구

소가 만든 한국디카시인협회의 회장이 디카시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견해를 계속 펼쳐서 전과 다름없이 디카시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제가 전면에서 나선 것일 뿐입니다. 더 이상 이런 입장문 발표를 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15일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옥